

마지막 홀 이글... “올해 느낌이 좋네”



9일 (한국시간) PGA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3R 4위에 도약한 임성재. 연합뉴스

임성재 PGA 투어 새해 첫 대회 3R서 공동 4위 도약
무결점 플레이·상위권 경쟁... 김시우 19위·이경훈 34위

임성재 (24·사진)가 2022년 첫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셋째 날 공동 4위로 올라섰다.

임성재는 9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759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820만달러) 3라운드에서 이글 하나와 버디 7개, 보기 하나를 묶어 8언더파 65타를 쳤다.

2라운드까지 12언더파 134타로 공동 5위였던 임성재는 사흘간 함께 20언더파 199타를 기록,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맷 존스(호주)와 공동 4위로 도약했다. 공동 선두 온람(스페인), 캐머런 스미스(호주·이상 26언더파 193타)와는 6타 차다.

선두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으나 임성재는 지난해 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는 새해 첫 대회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지난 이틀간 공동 5위에 이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다.

이날 임성재는 3번 홀(파4)에서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4~5번 홀 연속 버디로 반등한 뒤 7번 홀(파4)에서 3.5m가량의 버디 퍼트를 떨어뜨렸고, 9번 홀(파5)에선 벙커샷을 홀에 바짝 붙여 한 타를 더 줄였다. 후반 들어 파를 지키던 임성재는 14~15번 홀 연속 버디로 상승세에 불을 붙였고, 17번 홀(파4)에선 7m 넘는 버디 퍼트가 들어갔다.

이어 마지막 18번 홀(파5)에선 두 번째 샷을 그린 앞에 보낸 뒤 14m 넘게 남기고 퍼터로 굴린 공이 그대로 홀로 들어가며 이글이 돼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컨디션을 유지하며 우승 경쟁보다는 나만의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우 (27)는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였으나 공동 8위에서 공동 19위(14언더파 205타)로 미끄러졌다.

이경훈(31)은 4타를 줄여 공동 34위(7언더파 212타)로 2계단 상승했다.



러셀의 스파이크 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V리그 대한항공과 삼성화재의 경기에서 삼성화재 러셀이 공격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삼성화재 3-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명예회복’ vs ‘왕좌교체’

호반 여자 최고기사결정전
1·2위 최정·오유진 맞대결

한국 여자바둑계에서 부동의 랭킹 1위인 최정 9단과 2위 오유진 9단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오유진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1 호반 여자 최고기사결정전 본선리그 마지막 대국에서 조승아 5단에게 200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리그 전적 5승 2패를 기록하며 본선 2위를 확정된 오유진은 6승 1패로 결승에 선착한 최정 9단과 우승컵을 놓고 5번기를 펼치게 됐다. 오유진과 대국에서 아쉽게 역전패한 조승아 5단은 김채영 7단과 리그 성적 4승 3패로 동률이 됐지만 승자승 원칙에서 뒤져 4위로 밀려났다.

호반 여자 최고기사결정전에서

초대 우승을 놓고 격돌하게 된 최정과 오유진은 그동안 여섯 차례 결승에서 맞붙는다.

통산 상대전적에서 26승 4패로 압도적으로 앞선 최정은 오유진을 상대로 4번 우승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결승에서는 오유진이 최정을 꺾고 우승해 기세가 오른 상태다.

오유진은 지난해 11월 하림배 여자자국수전 결승에서 최정을 2-1로 물리쳤고, 12월 열린 한국제지 여자기성전 결승에서는 최정을 2-0으로 완파했다.

지난해 상대 전적만 따지면 오유진이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등 4승 3패로 앞섰다.

최정은 “(최근) 오유진 9단에게 진 빛이 많아 이번에 값있으면 좋겠다”라고 설욕 의지를 불태웠다.

오유진은 “최정 9단과 5번기는 처음인데 다시 대국할 수 있어 기쁘고 승리를 내주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FIFA 올해의 남자 선수 후보 선정

메시·레반도프스키·살라흐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남자 선수 최종 후보 3명에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파리 생제르맹)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바이에른 뮌헨), 무함마드 살라흐(이집트·리버풀)가 선정됐다.

FIFA는 8일 올해의 남녀 선수와 감독 최종 후보 3명씩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차 후보들이 선정됐고, 이날 부문별 3명씩의 최종 후보가 추려졌다.

올해의 남자 선수 부문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2년 연속 수상을 노리고 있으며 메시는 2009, 2010, 2011, 2012, 2015, 2019년에 이어 통산 7번째 수상에 도전한다.

다만 메시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FIFA 발롱도르라는 명칭으로 상을 받았다.

1991년 올해의 선수상을 제정한 FIFA는 2010년부터는 프랑스 축구 전문지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와 통합해 ‘FIFA 발롱도르’라는 상을 시상하다가 2016년부터 다시 발롱도르와 분리해 따로 시상식을 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는 메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레반도프스키가 2위에 올랐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FIFA 올해의 남자 선수최종 후보 3명에 들지 못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번이 11년 만이다.

본즈·클레먼스... 마지막 10수 도전

미국프로야구 명예의 전당

호른왕 배리 본즈(58)와 로켓맨 로저 클레먼스(60)가 10번째 도전에서 미국프로야구(MLB)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까.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회원이 스스로 공개한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2022 명예의 전당 트래커에 따르면, 8일(한국시간) 현재 본즈는 득표율 80.7%로 2위, 클레먼스는 79.3%로 각각 2, 3위를 달린다.

1위는 83.4%를 득표한 데이비드 오티스(47)다. 이 중 37%가 공개된 이날 본즈와 클레먼스는 명예의 전당 입회 기준인 득표율 75% 이상을 찍었다. 통산 홈런 762개를 쳐 이

부문 1위를 질주하는 본즈는 리그 최우수선수(MVP)에 7차례 뽑힌 독보적인 강타자다. 클레먼스 역시 사이영상을 7번 받은 대투수다.

그런데도 둘은 9년 연속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지 약물에 의존한 결과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었다.

둘이 현역 때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고 자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정황 증거가 넘쳐났고, 기자들의 표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2013년 첫 번째 입회 기회에서 고작 30%대에 불과하던 본즈와 클레먼스의 득표율은 2020년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그러나 2021년도 60% 초반에 머문 끝에 이제 마지막 ‘10수’에 몰렸다.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 회

귀하는 자조자립 협동의 활동조항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소상공민 협동조합 활성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제라콘 박영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은 물류센터